

광양시, 청년층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파격적 주거정책 추진

최대 15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자 대폭 확대

청년들의 사회적응·정착 지원 위해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

광양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에 최대 1,5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하고, 청년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총 781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지역에 정착했으며, 올해도 대상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정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 사업으로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청년 행복주택 건립 등이 있다.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광양시 대표 주거복지 시책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

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등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적응·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으로 최장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으로 최장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619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관외 전입세대는 106세대 166명으로 청년인구 장기정착 유도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보였다.

또한, 지난달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8.4%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 경감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층 인구 유입과 파격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신혼부부의 기준을 현행 혼인신고 기준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상주택 가격도 구입의 경우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전세는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시가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

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인기가 높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연 60만 원 ~ 18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116세대에게 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젊은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만 19세~39세 광양시 거주 청년 노동자나 사업자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지원자 58명에게 총 5천 4백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0명의 대상자를 모집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차공고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광양시 거주 예정 무주택자 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만19세~39세)	지원대상 광양시 거주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자녀 3명 이상	지원대상 광양시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 노동자 사업자 (만18세~39세)
지원내용 주입 : 연최대 300만원, 최장 5년 전세 : 연최대 200만원, 최장 4년	지원내용 연60만원 ~ 180만원, 최장 3년	지원내용 연최대 120만원, 최장 1년

문의사항: 광양시 전략정책실 ☎061-797-1995

※ 각 사업은 중부지역에 불가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 창업지원 등 청년 행복주택 건립

시는 유입 인구의 정착과 다양한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2023년 까지 광양을 칠성리 일원에 150세대 규모의 청년 행복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성황 도이지구에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주택 130호가 건립된다. 창업주택은 2024

년 6월 말 완공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젊은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광양시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주거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광양시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 ☎061-797-1995)으로 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2021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시작

올해부터는 남성도 지원 가능

순천시는 전라남도·전남한의사회와 함께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만 44세 이하인 여성이며, 올해부터는 남성도 지원 가능하며 나이기준은 없다.

신청은 난임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정액검사 결과지(남성)를 지참해 순천시 보건소에 방문

하여 2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방문 신청시 기본적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한의원에서 한약(4개월분) 치료 및 한의원 방문 상담을 통한 추적검사(6개월)를 실시하게 된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061-749-6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구례군, 교통소외 55개 마을에 100원 택시가 달린다

구례군은 대중교통 소외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1년 '100원 택시' 운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고자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로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을 지급하고 택시를 이용하면 차액을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지난 2016년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0.5km 이상

인 42개 마을, 2020년에는 0.3km 이상인 55개 마을로 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마을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 인원은 2016년 월평균 681명에서 2020년 3,13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16년 6천여만 원에서 2020년 약 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군은 2021년에는 이용권 배부를 현행 구간별 인구수 기준에서 실거주 인구수에 맞춰 1인 1매 기준으로 변경해 마을 간 이용권 배부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량 미소유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은 2016년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2017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2020년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시행 등으로 교통 취약계층의 교통생활권을 넓히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통시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